

별첨 2 2017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대상자 발굴형 프로그램 분야별 심의 총평

문학 순회사업

- 일시 : 2017. 2. 14(화) 10:00~15:30
- 장소 :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곽효환, 박효미, 은미희, 이광섭, 조말선

<문학순회-지역문학관 유형>

2017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문학순회-지역문학관 유형)에는 11건이 신청되어 9건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문학관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사전 서류 검토와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사업 건별에 대한 면밀한 토론 과정을 거쳐 개별 채점하였습니다.

한국문학의 독자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문학관에서의 특성화된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지 여부와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준,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대중성 및 인지도,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획의도, 수혜 대상 및 수혜자 특성에 대한 분석, 사업 수행능력(조직과 인력 등), 유사 사업 추진 경험과 실적, 예산 규모의 현실성 등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여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문학관에 대해서는 지역 문학의 구심적 역할을 기대하며, 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 문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가급적 지원 대상의 영역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원 신청한 단체들이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과 문학 인력에 대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신청 사업은 한국문학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실험적인 사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문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이에 따른 충분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 사업의 실행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문학관 특성에 맞고 수혜 대상에 대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다양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사업실행 과정에서 추가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문학관 유형에서는 당초 20건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문학관 유형에서 선정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예술단체 유형의 선정 규모를 늘려 문학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한국문학의 저변확대와 수혜 대상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성공적인 사업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동일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지역문화관이 관심을 갖고 응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문학순회-일반예술단체 등 유형>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문학순회 - 일반예술단체 유형)에는 총 48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와 개별 건에 대한 면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당초 10건 선정 예정에서 15건으로 선정 규모를 늘리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는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문학순회 - 지역문화관 유형)에서의 신청 건수 부족으로 인하여 선정 건수가 당초 예상한 규모보다 감소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반예술단체 유형의 선정 규모를 늘려 문학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학 체험 활동과 프로그램 향유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아 선정 건수를 늘리게 된 것임을 밝힙니다.

심사는 사업계획(프로그램)의 충실성과 작품성(20%), 프로그램 내용의 순회대상처 적합성(40%),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40%)을 심사항목 및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공지된 내용에 따라 지원신청자격 요건에 미달한 단체와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는 검토 후 심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의 독자 저변을 넓히고자 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거나, 수혜 대상이 명확한 경우, 그리고 한국 문학인들의 참여 증진 사업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한국문학이 주제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문학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일부 소재가 되었거나 외국문학을 주제로 한 경우 그리고 수혜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행사 취지가 모호한 경우, 일회성 사업, 순회 프로그램에서의 추진 기획력과 수행능력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본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만큼 기획력과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 역량, 적절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하여야 하겠고,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을 더 총원하여 문학 향유 프로그램으로서의 손색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 취지에 맞는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좋은 결과와 수혜 대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